

##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 연구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 Van Gogh's Calling in light of Still-life with Open Bible

라영환 교수 (총신대)

### 1. 서론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가 1885년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린 <성경이 있는 정물화(Still-life with Open Bible, 1885)>는 고흐가 평생 추구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고흐는 탁자 위에 펼쳐진 아버지의 성경책과 불이 꺼진 초 한 자루 그리고 에밀 졸라(Emil Zola)의 소설책 한 권을 그려 넣음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 고흐가 아버지가 임종하던 해인 1885년에 출간된 에밀 졸라의 책을 성경책과 함께 배치한 것은 참으로 흥미롭다.

비평가들 가운데 일부는 이 그림이 고흐가 아버지의 종교인 기독교로부터 벗어나 모더니티(Modernity)의 이상으로 전환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경책 옆에 고흐의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소설책을 배치한 것에 주목을 하였다. 김상근은 고흐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불 꺼진 촛대 아래 있는 성경에 대비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결별을 선언 하였다고 본다.<sup>1</sup> 앙드레 크라우스(André Kraus) 역시 이 그림이 고흐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포기하고 에밀 졸라의 소설도 대변되는 모더니티로 귀화했다고 주장한다.<sup>2</sup> 하지만 만약 고흐의 의도가 기독교와 모더니티를 대비 시키고자 하였다면 성경을 작게 그리고 에밀 졸라의 소설을 더 크게 그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작품을 보면 성경은 화면 중앙에 크게 부각되어 있고, 에밀 졸라의 소설은 비록 성경보다 앞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적어도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던 해인 1885년까지는 성경이 에밀 졸라의 책보다 고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왜 고흐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성경과 함께 그려 넣었는가 하는 것이다. 캐틀린 에릭슨(Kathleen P. Erickson)은 고흐가 거부한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교회였지,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에릭슨은 고흐가 성경과 소설을 함께 그려 넣음으로써 기독교신앙과 모더니티를 종합하고자 하였다고 본다.<sup>3</sup> 그러나 단지 성경책과 소설이 함께 있다는 것만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모더니티를 종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그가 기독교를 버리고 모더니즘을 선택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또 에릭슨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양자를 종합하고자 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

<sup>1</sup> 김상근, "선교사 빈센트 반 고흐", 『신학논단』 55, 171-213.

<sup>2</sup> André Kraus, *Vincent Van Gogh: Studies in the Social Aspects of his Work* (Tel Aviv, Zmora Bitan, 1983), 138.

<sup>3</sup> Kathleen P. Erickson, *At Eternity's Gate: The Spiritual Vision of Vincent van Gogh*, 180.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즉, 고희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통해서 고희가 일생을 통해 추구하던 고희의 사명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희가 평생 추구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과 그림이었다.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붓을 들고 살았다. 고희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는 이러한 고희의 소명을 잘 보여준다.

그 동안 화가로서의 고희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바에 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희는 덜 알려졌다. 일반 대중들에게 반 고희는 자신의 귀를 자른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 동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 받지 못한 천재, 비극적인 죽음 과 같은 것이다. 나탈리 에니히(Nathalie Heinich)가 주목한 바와 같이 고희는 화가 고희보다는 인간 고희로서 더 주목을 받았다.<sup>4</sup> 서양 미술사에 있어서 고희와 같이 화가 개인의 삶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화가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 조금 앞서거나 혹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들 예를 들어 마네, 모네, 드라쿨루아, 르노아르, 에밀 베르나르와 같은 화가들의 경우 그들의 개인적인 삶은 대중들의 관심 밖이었다. 화가가 아닌 인간 고희의 삶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의미들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고희에 관한 글들 가운데 고희 작품보다는 그의 삶에 관한 글이 더 많다는 것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나탈리 에니히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고희에 관한 출판물 671권을 분석하면서 이식에 나왔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희 삶의 전기에 관한 것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고희의 생애에 관한 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가 되고 점차로 성인전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고희의 실제적인 삶이 아닌 그에 관한 전설이 소이 말하는 반 고희 신드롬을 만들었다고 본다.<sup>5</sup>

그렇다고 고희의 작품에 관한 주목할만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고희의 작품에 대한 수많은 해설서들이 그의 전기와 더불어 출간되었다.근자에 심양섭,<sup>6</sup> 서성록<sup>7</sup>과 같은 학자들이 고희의 작품 바탕에 깔린 기독교적 가치관에 주목을 하면서 크리스천 화가로서의 고희의 삶과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희의 작품에 대한 이러한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동안 덜 주목 받았던 고희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에 나타난 고희의 소명, 즉 크리스천 화가로서 고희가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데를 드러내고자 한다.

본 논문이 다른 작품보다도 <성경이 있는 정물화>에 주목하는 것은 이 작품 속에 고희가 마음 속에 품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일평생 추구하던 소명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클리프 에드워즈는 고희가 그림으로 개종하였다고 하지만, 그림은 개종이 아닌 성직자가 되려는 그의

---

<sup>4</sup> 나탈리 에니히, 「반 고희 효과: 무명화가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이세진(역), (서울: 아트북스, 2006)를 보라. 이하 「반 고희 효과」로 한다.

<sup>5</sup> 나탈리 에니히, 「반 고희 효과」, 76-81.

<sup>6</sup> 심양섭, "빈센트 반 고희 미술의 기독교적 의미" 「신앙과 학문」, 제16권 3호(2011,9), 147-172. 심양섭은 반 고희의 그림의 바탕에는 기독교 복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고희의 생애 후반부에 그렸던 3부작 <피에타>, <나사로의 부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고희의 소명을 살펴보았다.

<sup>7</sup> 서성록, "반 고희의 <감자먹는 사람들> 연구" 「예술과 미디어」 Vol.12 no.3 (2013), 7-30. 서성록 역시 고희의 작품 바탕에 흐르는 기독교적 정신을 주목하면서 고희는 거의 모든 작품에 걸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에 차선으로 선택한 소명을 따르는 길이었다. 비록 성직자로서 그리고 화가로서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고흐는 일 평생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였다.<sup>8</sup> 성직자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고흐의 말을 들어보자.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네가 분명하게 알아주었으면 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노력해야 해. 내가 원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나의 목표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슬픔(Sorrow)'은 단지 작은 시작일 뿐이야. 아마도 「Lann van Meerdervoort」, 「Rijswijk Meadows」 그리고 「Fish Drying Barn」과 같은 풍경들 역시 작은 시작이지. 이러한 작품들 안에는 적어도 내 가슴 안에서 바로 나오는 것 (something straight from my own heart)들이 있어.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감상적인 우울함이 아니라 뿌리깊은 괴뇌야. 나는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들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는(역자주. 고흐) 깊이 느끼고 또 부드럽게 느낀다고 말하는 그런 경지에 까지 도달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것이 내가 온 힘을 다해 하고자 하는 바야. (1882.7.21)<sup>9</sup>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팍스러운 사람.....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야. (1882.7.21)<sup>10</sup>

나는 이 세상에 빛과 의무를 지고 있다. 나는 30년간이나 이 따위를 걸어왔다. 이에 보

---

<sup>8</sup> 30세에 화가의 길로 들어선 이후 7년 동안 그가 판 그림은 단 한 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해 내려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흐가 파리에서 그림수업을 할 무렵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을 팔았는데, 고물상은 고흐가 캔버스에 그린 물감을 벗겨내고 중고 캔버스로 팔았다고 한다. 고흐의 만년에 고흐를 치료했던 펠릭스 레이(Felix Rey)는 고흐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했던 그림을 받아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후에 닭장의 여닫이 문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sup>9</sup> Van Gogh,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I (London: Thames & Hudson), 416. 고흐의 편지 모음은 출판된 책마다 numbering이 다르다. 고흐의 편지 가운데는 날짜가 써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고흐의 편지들을 편집한 이들마다 고유한 numbering을 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I, II, III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책의 페이지를 표기하고, 인터넷에서 인용했을 경우엔 vangoghletters.org에서 제공하는 numbering을 사용할 것이다. 이 웹의 자료를 인용할 때는 웹 페이지를 다 표기하지 않고 vangoghletters라고한 후 numbering을 할 것이다. 예) vangoghletters, 249. 여기서 249는 페이지가 아니라 vangoghletters.org에서 제공하는 numbering임을 한번 더 밝혀둔다.

<sup>10</sup> Van Gogh,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I, 416.

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림의 형식을 빌어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다. 이런저런 유포에 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남기고 싶다. 그것이 나의 목표다. (1883.8.4-8)

깊고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힘이자 신비한 힘으로 감옥을 열게 되는 거지.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아. 그러나 사랑이 부활하는 곳에 인생도 부활하지. (1880.7.)

침묵하고 싶지만 꼭 이 말을 해야 한다면 이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 받는 것, 곧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게, 쓸모 있게, 무언가에 도움이 되는 것, 예컨대 불을 피우거나, 아이에게 빵 한 조각과 버터를 주거나,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물 한잔을 건네 주는 것이라고..

이러한 고흐의 글 속에서 우리는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 속에 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엿보게 된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의 목적은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이다. 고흐의 소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그림을 그리기까지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2장에서 다룬 내용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가 화가가 되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화가로서 그림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3장에서는 고흐의 작품과 기독교세계관을 다룬 것이다. 상당수의 비평가들이 고흐의 작품과 기독교는 거리가 멀라고 본다. 그것은 고흐가 그린 그림 가운데 성경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성직자가 되고자 했지만 당시 교권화된 교회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고흐가 종교적인 주제를 그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1990년에 그린 <피에타>, <죽은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작품뿐이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그의 그림 바탕에 흐르고 있는 토대이다. 비록 고흐가 성직자의 꿈을 이루지 못하자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지만, 일부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기독교복음을 버리고 모더니티로 개종한 것은 아니다.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4장에서 다룬 내용이다. 4장에서는 그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나타난 고흐의 소명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고흐가 일평생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sup>11</sup>

## 2. 고흐의 삶과 소명

고흐는 (Vincent van Gogh)는 1853년 3월 화란의 준데르트(Zundert)에서 3대째 목사의 아들

---

<sup>11</sup> 한 가지 밝혀두고 싶은 것은 고흐를 단순한 전기에서 성인전으로 전환하였던 이전의 시도들처럼 고흐가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이 논문의 의도와 멀다는 것이다. 고흐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직자로서 화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자 애쓴 사람이었다.

로 태어났다. 고흐의 할아버지는 1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고흐의 아버지 데오도르(Theodore)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고, 삼촌들 가운데 3명은 화상이 되었다. 그의 삼촌들이 그림을 파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 사실은 후에 고흐가 화가가 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고흐의 아버지는 3남 3녀를 두었다. 고흐가 6 형제중 장남이었고 남동생으로는 평생 고흐의 후견인이 되었던 동생 테오(Theo)와 4살 어린 코넬리스(Cornelis)가 있었다. 고흐는 당시 화란의 성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산층(middle class) 시민이었다. 고흐의 아버지는 화란 개혁파 목사로 어린 시절 고흐는 강한 칼빈주의적 전통의 영향 속에서 자라났다. 고흐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열정과 종교적인 헌신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 고흐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았다.

고흐의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엔(Sien)과의 만남이다.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쓴다.

지난 겨울 임신한 한 여자를 알게 되었다. 겨울에 길을 헤매고 있는 임신한 여자. ...그녀는 빵을 먹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얻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 하루치 모델료를 다 지불하지는 못했지만, 집세를 내주고 내 빵을 나누어 주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배고픔과 추위에서 구할 수 있었어. ...중략 ...처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병색이 짙어서 눈길이 갔어. 목욕을 시키고 여러모로 보살펴주자 그녀는 훨씬 더 건강해 졌어. ...나는 지금 보다 더 나은 때에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것이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과거의 길, 그녀를 구렁텅이로 내몰 것이 분명한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아마도 이 편지가 너로 하여금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할거야. 우선 상황을 설명해 주마. ..누군가 나에게 너는 부도덕하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없다. 나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어. 그리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 여자, 병들고 임신한데다 배고픈 여자가 한겨울에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나는 정말이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1882. 5.3-12)<sup>12</sup>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될지 모르지만 고흐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흐가 성직자가 되고자 한 것은 파리에 있는 구필 화랑에서 근무할 때였다. 당시 파리는 1871년의 파리 코뮌이 끝난 혼란의 시기였다. 그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같은 성직자가 되기를 원해. 나도 알아. 아버지께서 내가 당신과 같이 성직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고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이른 나이에 그림을 파는 일을 시작했지만, 그가 하는 일에 만족을 얻지 못했다. 이 무렵 고흐는 성경을 열심히 탐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최근 들어 교사와 성직자보다 더 좋

---

<sup>12</sup> Van Gogh, *The Complete Letters of Vincent van Gogh* vol. I, 349-350.

은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그 중간쯤에 있는 선교사, 특히 런던선교회 선교사 같은 일도 괜찮겠지."<sup>13</sup>

고흐는 1876년 4월 23일 영국의 도버해협 근처에 있는 램스게이트라는 마을의 기숙학교 교사로 부임한다.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어와 수학을 가르쳤다.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런던 출신의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고흐는 3개월 만에 해고를 당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집을 돌며 체납된 수업료를 받아오라는 교장선생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흐는 런던에 있는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부모들의 삶을 목격한다. 그런 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납부하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그는 그 일을 빌미로 해고당하게 된다. 해고된 고흐는 자신이 그 비참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성직자가 되어서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구원해 주겠노라고 결심한다.<sup>14</sup>

하지만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고흐의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벨기에의 보리나주(Borinage, Belgium)에 있는 한 탄광촌에 수습선교사로 사역하였다.<sup>15</sup> 이때가 고흐의 나이 25세였다. 당시 탄광촌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였다. 이들은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 1879년 4월 16일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고흐가 탄광촌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측은하게 보았는지 엿볼 수 있다.<sup>16</sup> 「석탄을 옮기는 여인들(1882)」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고흐는 이러한 비참함을 보고 탄광촌의 목회자로 대접받기 보다는 광부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 동안 머물던 하숙집에서 나와 오두막에서 기거하였으며, 자신이 가진 돈이나 의복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다.

당시 탄광은 가스 폭발과 낙반 사고 등이 빈발하여 광부들은 날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sup>17</sup> 사고가 발생하면 고흐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들을 구출하였고, 의사가 포기한 중환자들을 성심 성의껏 간호해서 살려내기도 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고민을 상담해 주고, 입는 옷마저 아낌없이 벗어주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슬픔을 접할 때는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 못하면 견디지 못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sup>18</sup> 사람들은 이러한 고흐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고흐가 전하는 복음설교에 귀를 기울였다.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그가 속한 복음교회는 그가 성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은 고흐가 광부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그림이었다. 고흐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들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관심을 받아야 할 이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고 잊고 지내던 이들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이들을 치유하고자 했

---

<sup>13</sup> vangoghletters, 085.

<sup>14</sup> 누무라 아쓰시, 「고흐, 38년의 고독」 (서울: 큰결, 2004), 59-63. 고흐가 이 시기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전기 작가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노무라 아쓰이의 글이 본 논문과 유사한 관점으로 쓰여졌기에 인용함을 밝혀 둔다.

<sup>15</sup> Judy Sund, *Van Gogh* (New York: Phaidon, 2002), 36.

<sup>16</sup> angoghletters, 151.

<sup>17</sup> 데이비드 스위트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서울: 한실아트, 2003), 210-212.

<sup>18</sup> 데이비드 스위트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 213-218.

다. 1880년 9월 24일 고희는 동생 테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들이나 장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한 이들이다. 언젠가 이 이름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이다."<sup>19</sup> 고희는 원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연약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의무를 일깨워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고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박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은 그의 소명이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영적인 치유와 위안이 되었다.

### 3. 고희와 기독교

고흐의 그림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고희의 그림이 종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고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성직자가 되기를 갈망하였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화가로서의 고희와 그의 작품 속에 담겨진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 주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서성록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고희의 초기 작품들은 표면적으로는 밀레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적 정신이 흐르고 있다. 그는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종교적인 주제를 그리고자 하였다.<sup>20</sup>

고흐의 생애를 다룬 BBC 다큐멘터리 "Private life of a Masterpiece"에서 고희가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더글라스 두르위크(Douglas Druick)은 해바라기가 오랫동안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갈망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징(emblematic symbol)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해바라기가 그리스도를 향한 고희의 소명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sup>21</sup> 샘 시갈(Sam Segal) 역시 해바라기는 오랫동안 네델란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22</sup> 해바라기는 *imitatio Christi*의 상징이었다. 17세기 네델란드 성경책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한 성경에 해바라기 삽화가 그려져 있었다.<sup>23</sup>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고희는 어릴 적부터 해바라기의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

<sup>19</sup> vangoghletters, 158.

<sup>20</sup> 서성록, "반 고희의 <감자먹는 사람들> 연구" 「예술과 미디어」 Vol.12 no.3 (2013), 7-30. 안재경 역시 고희의 올리브 숲을 연작으로 그린 것을 예로 들면서 종교적인 이미지를 사용했기에 종교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참고) 안재경, 「고흐의 하나님」 (서울: 흥성사, 2010), 250-260.

<sup>21</sup> <http://www.youtube.com/watch?v=zvFksXDkEto>

<sup>22</sup> <http://www.youtube.com/watch?v=zvFksXDkEto>

<sup>23</sup> [http://www.youtube.com/watch?v=zvFksXDkEto&feature=player\\_detailpage#t=745](http://www.youtube.com/watch?v=zvFksXDkEto&feature=player_detailpage#t=745)



Vase with fourteen Sunflowers (1888) / London

어쩌면 훗날 고흐가 토마스 아캠퍼스(Thomas à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즐겨 읽었던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sup>24</sup> 고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자기에게 미친 영향을 테오에게 설명하면서 너무도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경외감이 솟아오른다고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를 부정하는 삶으로 성공과 실패에도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1875년 10월 6일에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테오에게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L' imitation de Christ)」를 성실하게 읽을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sup>25</sup> 에른스트 르낭(Ernst Renan)은 토마스 아캠퍼스와 함께 고흐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다. 1875년 5월 8일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르낭의 글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세상에서 행동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아를 죽여야 해. ... 인간은 단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혹은 단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고귀함에 도달하기 위함이지.<sup>26</sup>

르낭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약자 편에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마고 고흐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자신의 작품의 대상으로 많이 삼았던 이유도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술로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고자 함이었을 것이다.<sup>27</sup> 고흐가 가졌던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은 그의 작품의 회화적인 특징이 되었다.

---

<sup>24</sup> vangoghletters, 129.

<sup>25</sup> vangoghletters, 054.

<sup>26</sup> vangoghletters, 033.

<sup>27</sup> 고흐가 살았던 19세기의 서구 신학은 소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기 교회의 주된 메시지는 윤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고, 산상수훈은 기독교 윤리의 토대였다. 고흐가 르낭과 같은 학자의 글에 매료된 것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와 관련이 있다.





Sower ,van Gogh(June, 1888)

〈해바라기〉와 함께 〈씨를 뿌리는 사람〉 연작 시리즈는 고흐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고흐는 친구 에밀 베르나르(Emil Bernard)에게 보낸 편지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수확하는 작업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설명한다.<sup>28</sup>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가운데 하나이다. 고흐는 1881년부터 그가 사망하던 해인 1990년까지 〈씨를 뿌리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그렸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상징이었다. 1888년 고흐가 그린 〈씨를 뿌리는 사람〉 시리즈에서 고흐는 색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6월 28일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제와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을 그렸어. 하늘은 노랑고 푸르게 그리고 땅은 자주색과 오렌지 색으로 채색하였지. 문제는 드라클루아(Delacroix)의 〈선상(船上)의 그리스도〉와 밀레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 사용된 기법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지. 〈선상의 그리스도〉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청색과 녹색이 주를 이루고 보라색과 빨간색 그리고 후광(hallo)에는 레몬 노랑색. 색채만 가지고도 후광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지. 반면 밀레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Israel)의 작품은 회색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을 다채로운 색으로 그릴 수 없을까?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동시 대비를 넣어가면서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sup>29</sup>

여기서 우리는 고흐가 상징적인 색채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쟁기질이 끝난 밭을 파랑과 주황으로 표현하고 씨를 부리는 사람 뒤편에는 반짝이는 봄 일을 보라와 황금색으로 채색하였다. 또한 씨앗을 뿌리는 장면과 잘 익은 봄 밀은 죽음과 부활의 순환을 암시한다. 씨를 뿌리

<sup>28</sup> vangoghletters, 628.

<sup>29</sup> vangoghletters, 634.

는 사람 뒤편에 있는 태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에게 황금색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색이었다. 그의 편지에서 보듯이 태양은 드라쿨루아가 <선상의 그리스도>에서 표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물을 빼고 오직 상징으로만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태양은 앞서 이야기한 해바라기와 더불어 고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미지였다.<sup>30</sup>

고흐는 일생 동안 30점 이상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그렸다. 박흥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밀레는 고희에게 있어서 정신적이 지주와 같은 인물이었다.<sup>31</sup> 화가 견습생으로서 고희가 밀레의 그림들을 모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고희는 자신만의 화풍이 형성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밀레의 <씨를 뿌리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그렸다. 비평가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모작으로 보는데 필자는 모작이라기 보다는 밀레로부터 받았던 영감을 자신의 소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재 해석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sup>32</sup>

#### 4. 성경이 있는 정물화

이제 고희의 그림을 중심으로 고희가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자. 고희가 1885년에 그린 <성경이 있는 정물화>는 고희의 소명을 엿볼 수 있는 주목할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면서 고희가 그린 것이다. 고희는 탁자 위에 펼쳐진 아버지의 성경책과 불이 꺼진 초 한 자루 그리고 소설책 한 권을 그려 넣음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을 기리고 있다. 그가 화복에 담은 이 세가지 물건들은 고희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성경책과 초 그리고 소설책은 그가 평생 동안 맞추고자 했던 퍼즐 조각이었고 삶의 의미들이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불이 꺼진 초에 대해서 살펴보자. 불이 꺼진 초는 네델란드 메멘토모리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로서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가운데 성경책이 있다. 성경책 우측 페이지 상단에는 ISAIE 라는 글자와 로마숫자 LIII가 써있다. 이것은 펼쳐진 성경책의 내용이 이사야 53장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는 작은 노란 책이 한 권이 있다. 이 책은 에밀 졸라(Emil Zola)의 『삶의 기쁨(La Joie de vivre)』이다.

---

<sup>30</sup> 고희는 1990년에 그린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서 그리스도 대신 태양을 그렸다. 여기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sup>31</sup> 1885년 4월 1일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이고 고희는 밀레는 자신과 같이 젊은 화가들이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고 언급하였다. cf. vangoghletters, 493.

<sup>32</sup> 고희의 작품 속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의자>를 빼 놓을 수 없다. 고희는 아를(Arles)에서 머무는 동안 새로운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는 고갱이 도착하기 전에 12개의 의자를 사서 집을 꾸몄다.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와 12명의 정탐꾼 등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 아마도 고희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12개의 의자를 준비한 것처럼 보여진다.



Still-life with Open Bible (1885)

전술한 바와 같이 비평가 중에는 이 그림이 고흐가 아버지의 종교인 기독교로부터 벗어나 모더니티의 이상으로 전환한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성경책 옆에 고흐의 아버지가 그토록 싫어했던 현대 소설들을 배치한 것에 주목한다.<sup>33</sup> 그러나 만약 고흐의 의도가 기독교와 모더니티를 대비 시키고자 하였다면 성경을 작게 그리고 에밀 졸라의 소설을 더 크게 그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왜 고흐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성경과 함께 그려 넣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흐 자신의 말을 들어보아야 한다. 고흐는 1887년 10월 하순 경에 여동생 빌헬미나(Wilhelmina)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할까? 내 생각에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수님도 우물에 잠겨 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 나가거라.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 말과 글이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남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세상을 변화 시킨 것과 같은 깨끗한 양심에 비교될 수 있는 위대하고 선하고 근본적이고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sup>34</sup>

이 편지는 고흐가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그린 지 2년이 지난 후에 빌헬미나 쓴 것이다. 고흐는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말은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없는 낡은 사고를 말함이 아니다. 한때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과거 보다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옛 것을 되돌아 보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것은 당시 인습에 사로잡힌 교회였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흐는 목회자가 되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인습에 갇힌 교회의 전통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sup>33</sup> James Harris, "Still Life with Open Bible and Zola's *La Joie de Vivre*", *Art and Images in Psychiatry*. vol 60 (Dec.2003), 1182. 1881년 크리스마스, 고흐는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집에서 나가게 된다. 졸라의 소설은 고흐와 아버지의 다툰의 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고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현대 소설에 빠져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sup>34</sup> vangoghletters, 574.

못했다.

이 편지에서 고흐가 문제시 한 것은 성경이 가진 진리성 보다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닫힌 사고였다. 그가 말한 우울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듣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인습에 사로잡힌 교회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일 것이다. 고흐가 보기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고, 그러한 교회 속에서는 희망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고흐가 말하는 "말과 글"은 아마도 성경과 성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 그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순수하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고흐에게 성경은 단지 낡은 사고만은 아니었다. 그가 펼친 성경은 고난의 종을 노래한 이사야서 53장이다. 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당시 교회가 축했던 화려한 메시아 상(象)과 대조된다. 그가 펼친 성경은 그가 몸소 실천하고자 했던 삶의 목표였다. 그는 1887년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성경에 이끌리고 있는 너는 잘 알지 못할 거야.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빛이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이해하려고 해." 여기서 우리는 고흐가 성경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찾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

고흐가 에밀 졸라의 소설을 성경책과 함께 그린 것은 그의 소설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현대식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La joie de vivre)』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종교와 모더니즘의 관계가 아니다. 고흐는 이 소설에서 성경과 그가 살아가던 시대의 문제들을 하나로 엮는 메시지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폴린 케뉴(Pauline Quenu)은 10세때 보무님을 여의고 아버지의 친척인 샹토스(Chanteaus)의 집에서 자라게 된다. 졸라는 이 소설에서 폴린의 낙관적인 삶의 태도와 샹토스 집안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우울을 대비시켜 이야기를 전개한다. 폴린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은 베푼다. 고흐는 이 책에서 죄로 물든 인간에 대한 성육화(incarnated)된 사랑을 보았다. 고흐는 성경이 있는 정물화를 그리기 2년 전에 이 소설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졸라의 소설을 가능하면 자주 읽으라고 권면한다. "테오야 졸라의 소설을 가능한 한 많이 읽어라. 졸라의 소설은 참 좋은 책이다. 그의 글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지."<sup>35</sup>

고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요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더 꼼꼼히 읽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새로운 것들은 그 보다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어. 게다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행동할 수 밖에 없고 미래나 과거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만 상관 있잖아."<sup>36</sup> 여기서 우리는 고흐의 관심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음을 엿보게 된다. 고흐는 화가로서 자신의 사명은 성경의 오래된 것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찾아서 그림을 통해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화폭 중앙에 커다랗게 그려진 성경은 오늘의 문제들에 대한 해안을 줄 수 있는 영속적인 진리를 묘사하고, 그

---

<sup>35</sup> vangoghletters, 250.

<sup>36</sup> vangoghletters, 574.

보다 작게 그려진 에밀 졸라의 소설은 이러한 고흐의 소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5. 결론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고흐(Vincent van Gogh)를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했다. 그의 말처럼 고흐는 연민의 마음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 예술을 구축하고자 자신을 불사른 화가였다. 클리프 에드워즈(Cliff Edward)는 반 고흐가 신학자와 신앙인들 그리고 의미와 소명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영적 순례자들이 주목할 만한 예술가라고 하였다. 마이어 사피로(Meyer Schapiro)는 고흐를 이렇게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 고흐가 이 모든 포부와 고뇌를 예술로 승화시켜 자신이 깊이 체험한 자아 변화와 영적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을 보여준 첫 본보기가 되었다." 고흐는 성직자로서도 그리고 화가로서도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있다. 고흐가 죽고난 이후 알베르 오리에(Albert Aurier, 1865-1892)는 메르퀴르 드 파랑스(Mercure de France)라는 미술잡지에서 고흐의 작품을 때로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소박함과 진실성이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면서 머지않아 정체된 미술계로 구원할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야수파(fauvism)의 거장 블라맹크는 1901년 고흐의 회고전을 보면서 고흐를 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고흐가 성직자로서 그리고 화가로서 추구한 것은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였다. 그가 거부한 것은 그의 순수한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당시 교회였다. 성경은 고흐가 평생토록 영감을 받았던 책이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그가 그토록 추구하던 성경과 그림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술에 대한 그의 추구는 그의 사후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앞에는 늘 두 개의 길이 있었다. 성경과 세상, 성직자와 화가, 절망과 희망, 죽음과 삶.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하지만 고흐는 이 둘을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있는 정물화>엔 이러한 고흐의 소명이 잘 나타나 있다.

## 라영환교수의 논문에 대한 질의서

라영환교수님의 논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화 연구를 통해서 바라본 고흐의 소명”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발제자는 논문에서 반 고흐의 정물화에 담겨진 고흐의 소명을 살펴보기 위해 그가 화가로 입문하기 전까지의 삶의 여정, 고흐의 작품과 기독교세계관,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성경이 있는 정물화>(Still Life with Open Bible)를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반 고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아직도 ‘광인’이라든지 ‘자살자’, 또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린 사람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그의 생애가 왜곡된 탓도 크겠지만 그의 삶과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즈음에 발제자가 일생을 통해 고흐가 추구했던 소명을 밝힌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세계관을 품고 살았던 고흐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는 정물화>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독교와 모더니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이 작품은 화면에 놓인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으로 인해 고흐가 기독교를 등지고 모더니즘을 옹호하는 작품으로 평가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고흐가 애독하던 빅토르 위고, 에밀졸라, 미술레 등의 근대소설은 부친 테오도루스가 ‘완고하게 거절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책을 부친을 추모하는 그림속에, 성경책과 함께 놓아 그런 시각을 한층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전시회 도록에는 이런 관점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빈센트는 경건한 감정에 휩싸여 루나리아 꽃병을 그린 정물화에 아버지의 파이프와 담배주머니를 끼어넣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졸라의 <삶의 기쁨>과 아버지의 전통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성경책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아버지를 거리낌없이 비판하였다.”

발제자는 <성경이 있는 정물>을 통해 이런 기존의 시각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고흐의 소명을 엿볼 수 있는 주목할만한 작품’이며, 그가 평생 맞추고자 했던 신앙과 모더니티의 퍼즐조각이란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만일 이 작품이 아버지의 전통적 신앙관에 대한 대립각으로 『삶의 기쁨』을 넣었다면 기존의 견해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런 관점은 퍼진 성경책의 내용과 소설의 내용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발제자는 밝혀내고 있습니다. 즉 발제자는 이사가 53장에 나오는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소설의 주인공인 폴린이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속에서도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며 사랑과 선량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가치를 발견한 고흐의 의도를 명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발제자가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폴린의 희생적 자세를 “죄로 물든 인간에 대한 성육화된 사랑”으로 분석한 것은 반 고흐가 『삶의 기쁨』을 기용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반 고흐는 자신의 예술을 기독교적 세계관속에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동시대 문학을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계시이자 복음’(Anton Wessels)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고흐는 <성경이 있는 정물>에서 에밀졸라의 책을 선보였으나 그밖에도 미슐레와 빅터 위고, 발자크, 조지 엘리엇, 휘트먼 등 당대의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영향을 두루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 고흐는 그외에도 미슐레와 빅터 위고, 발자크, 조지 엘리엇, 휘트먼 등 당대의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영향을 두루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이 다른 작품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소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영향은 어떻게 작품으로 승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교수님은 본문의 말미에 “과거보다는 현재에 충실해야한다”는 고흐의 명제를 소개하면서 인습에 사로잡힌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고흐가 문제시 한 것은 성경이 가진 진리성보다는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닫힌 사고”라는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19C 만이 아니라 우리의 ‘닫힌 사고’ 때문에 우리 시대가 처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반문하게 됩니다. 스카이 제씨니(Skye Jethani)가 지적하셨다시피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불 꺼진 교회’를 그린 것도 기성교회가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교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평소에 많이 고민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오늘날의 ‘닫힌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극복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록(안동대 미술학과 교수)